

# 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2월 1일 (월간)

www.je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12호

2017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 어린이집 운영부담 줄어든다

올해부터 바뀌는 사회복지 시책을 아동·보육, 여성·가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보건·위생, 생활보장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아동·보육 분야>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소규모 어린이집 취사부·운전기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 비영리법인 등 특정 어린이집에만 지원되던 취사부·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이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 실시된다.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개별적인 운영자가 직접 가입했던 어린이집 상해보험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일괄 가입해 전 어린이집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종사자 교통수당이 7만원(‘16년 5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 향상되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한해 지원되던 장애아보육 교사 수당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하는 교직원에게까지 확대 지원된다.



### <여성·가족 분야> 양성평등 정책 강화·확대

지난해 생활체험형 양성평등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주처럼’ 사업이 더 확대된다. 육아에 대한 경험·정보를 나누고 품앗이 육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수놓음육아나눔터가 작년 10개소에

이어 올해 15개소 더 조성될 계획이다. 도는 2018년까지 읍·면·동에 수놓음육아나눔터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공동육아 활동을 하는 사회적돌봄 공동체 발굴·육

성 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공동육아를 희망하는 주민 5인 이상의 부모 자조모임이면 신청 가능하다. 1개 공동육아팀별 연간 5백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며 작년 18개소 발굴에 이어 올해는 30개소 발굴·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장애인 분야>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종류와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활동보조로만 이뤄지던 급여 종류가 활동보조, 방

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로 확대되고 지원 기준은 최종증 취약가구가 90시간(‘16년 25시간)으로 확대되어 자립생활 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활동 지원을 위해 월 24시간 제공되던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이 월 32시간으로 늘어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한다.

☞ 2면에서 계속



▲ 지난달 12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2017년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축하시루떡 커팅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성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12일 협의회 2층 삼다수 홀에서 ‘2017년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도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윤춘광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사회복지시설·단체장 및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7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식,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신임 시설장 인사, 참가자 교례, 축하 시루떡 절단식과 축배, 경품권 추첨, 떡국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고치환 회장은 “지난 3

년 동안 회장으로 봉사하며 제주사회복지공동체가 더욱 더 튼튼하게 자리매김했다. 다시 회장으로 3년간 봉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2017년 새해에는 사회복지계가 출선수범하여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올해 개설하는 사회복지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전달체계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주형 복지 확대를 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인들과 활발한 대화와 교류로 서로 협력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 지면소개

- 종합 ..... 3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 특집 ..... 7면  
따뜻한 나눔 식품기부액 지난 한해...
- 사회복지소식 ..... 4면  
제주복지 연구조직 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
- 기획 ..... 8면  
시설탐방(84) - 나눔요양원

JDCar

이동약자의 발이 되어 드리는 복지용 특장차량 대여서비스

## 를 대여해 드립니다

도내·외 사회복지시설(단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통한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JDC 지원으로 ‘복지용 특장차량(JDCar)’을 대여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단체)  
비영리기관

**지원용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지원

**승차정원**  
6인  
(휠체어이용자  
2명 탑승 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064-702-3784)

2017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노인 분야〉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전년보다 19% 완화·조정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간식비 단가가 올해부터

기존 13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전년 1억 24백만원에서 올해 1억 90백만원으로 증가됐다.

기존 18개 운영되던 프로그램 과목에 자연비누 만들기, EM활용 화장품 만들기, 할머니 네일아트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제도가 변경·개선된다.

주요내용은 △촉탁의 지정에 시설장이 임의 지정하던 것을 지역의사회에서 추천받고 △자격요건에 초과과사가 추가되며 △비용을 시설이 자율적으로 부담하던 것을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으로 바로 청구하게 된다.

☞ 1면에서 계속



〈보건위생 분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가 제주의료원 1개 병동(20병상)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사업비 44천만원으

로 지역거점공공병원 국고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2016년 8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실시되던 잠복결핵 검진이 병원급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잠복결핵 고위험군에 한하여 전면 무료 시행된다.

지원체계는 보건소가 참여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검진을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비용지급을 신청하면 검진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올해 3월부터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대상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서 100인 이상 어린이 급식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보장 분야〉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강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지원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상향 조정되고 생계급여가 소폭 인상돼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 안정이 강화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 447만원으로 전년 439만 원에서 1.7%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급

여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인상돼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1~6급 등록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외국인 포함... 소득에 관계없이 태아 1인당 1백만원

제주시는 지난 달 20일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2012년부터 국고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

로 지원기준은 소득에 관계없이 1~6급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이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반영된 예산은 2천8백만원이며 작년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은 24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장수노인수당 지급 규정 등 노인 보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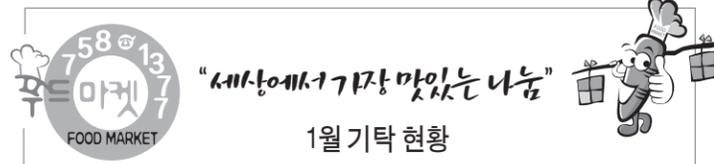
제주 특별자치도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달 11일 입법예고했다.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어르신 공경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소령주택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의 생신 축하 사업을 단

에 있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하고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개정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생신의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가 함께 축하함으로써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고한철=감귤 100kg ▲금강수산물통=수산물 40kg ▲금강축산물통=축산물 121kg ▲김치원=김치 30kg ▲꽃비나리는뜨락=떡3 61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629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 50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5,617개 ▲모양=제과류 65봉 ▲빠라빠빵=식빵 89봉 ▲사회복지협의회=쌀 10kg ▲신화유통주식회사=고추장등 480개 ▲암암영농조합법인=빵 57봉 ▲에스에이치유통=뽕밥소스 1,107개 ▲유진상사=오투기식품 2,574개 ▲이든이네=건멸치 7.5kg ▲자연드림 이도점=빵 141봉 ▲작은세상봉사단(김정심)=만두 70봉 ▲제주농연=식재료 73개 ▲제주보리촌=보리빵 690개 ▲제주시 주민복지과=쌀 230kg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감귤음료 200병 ▲(주)제인앤이=과자 768봉 ▲갯어클락=식빵 94봉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주방세제 32개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291봉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12월 후원금 현황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제가결연후원	1,800,000	2,500,000
난치병환아후원	65,000	0
자원봉사후원	7,930,000	4,550,000
복지사업후원	3,930,000	278,180
푸드마켓후원	3,350,000	66,22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인 : 고경운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 335만원으로 상향... 전년 대비 2.3%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10일 2017년도부터 위기가정 등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329만3천원에서 335만원(4인기준)으로 1.73%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며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금도 전년대비 2.3% 상향 지원된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월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35만원), 재산 8천5백만원 이

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115만7천원(4인기준), 의료비 3백만원 한도(자부담분), 주거비 41만 8천원(3~4인기준), 사회복지 시설 이용비 53만원(1인), 자녀교육비 초등학교 21만 9천원, 중학교 34만 8천원, 고교생 42만 7천원(학교 고지 금액 및 입학금)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연료비 9만5천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등 위기상황에 따라 각각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긴급복지는 1,549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10억7천만원이 지원돼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에 도움을 줬다.

긴급복지 지원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도 긴급복지제도를 잘 몰라 위기상황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주변에서 이런 분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긴급복지 대표전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고, 도에서도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제주시는 지난 달 20일과 21일 ‘아름다운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의소리(대표 김승석)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원기준 사무총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고경실 제주시장을 비롯하여 롯데면세점봉사단, 사회복지무요원봉사단 등 4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이번 나눔운동을 통해 연

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26세대에 세대당 19공탄 216장씩 5,616장(560만원상당)의 연탄이 전달됐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처럼 이웃사랑이 널리 퍼져 나갈 때 어려운 이웃들이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며 “제주시에서도 나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난 달 20일 삼양동 한 저소득가구에 '사랑의 연탄' 을 옮기고있다.

##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 고명대씨, 제7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



▲ 지난 달 12일 제7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고명대씨(가운데).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제7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고명대 자원봉사자(한마음 봉사회)를 선정했다.

고명대 자원봉사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1967년부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1994년부터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압과 마사지 기술을 활용, 생계가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주 3,4회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77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라동 지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식사 배달, 세탁봉사, 경로당 주방 식기 소독활동 등 봉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997년 장기기증서약 후 2003년 제주대학교 의대에 시신기증서약을 했고, 가족들도 그의 뜻을 따라 시신기증서약을 하는 등 생명나눔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명대 봉사자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남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라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부간 존경하고 남을 존경하고 상호간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등재 소감을 말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후보자를 공모하고 등재자를 선정한다.

### 더불어 행복한 제주만들기

제주도청 존샘봉사회(회장 강은숙)는 지난 달 4일 ‘2016 공직자동호회 활동평가’에서 받은 시상금 80만원을 사랑나눔푸드마켓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도 소속 공직자 동호회를 대상으로 활동실적을 평가한 결과 존샘봉사회가 최우수 동호회로 선정됨에 따라 받은 시상금이다.

제주도청 소속 공직자들



로 구성된 존샘봉사회는 2007년 창단 이래 ‘작은 정성으로 키우는 행복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제주농협, 설맞이 사랑의 쌀 기탁



제주농협행복나눔운동본부(공동본부장 고병기, 양용창)는 지난달 24일 제주광역푸드뱅크를 찾아 ‘사랑의 쌀’ 1750kg(4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제주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전개하고 있는 ‘제주농협행복나눔운동 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도내 기초푸드뱅크마켓 5개소를 통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 제주복지 연구조직 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

## 2월중 전담팀 공모... 중장기 복지정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복지중장기계획 연구 기능을 수행할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창의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되며 2월중 공모(예산5억)를 통한 전담팀(센터장 및 연구원)을 확보하고 발전 연구원내 사무공간을 차린 후 금년부터 첫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주요 연구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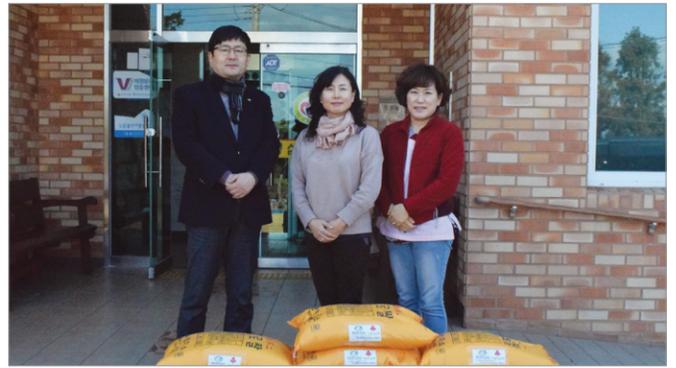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타당성 분석 △ 재정투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복지사업 평가단 운영 △사회복지 혁신모델 연구 등이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창의센터에서는 도내 현장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가능한 유망형 복지 사업에 대한 멘토 매칭 및 컨설팅, 교육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주도내에 사회복지분야 전문 연구기관이

없어 의회 등 각계에서 자체적인 복지분야 연구센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양시연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운영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사회복지분야 발전모델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각계 전문가의 견수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주민 맞춤형 복지 정책개발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에너지공사,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직 무대행 고상호)는 지난 달 26일 설 명절을 맞이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쌀 나눔은 지방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해 명절마다 진행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노숙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 10개소를 선정하여 쌀 2000kg을 기증했다(사진).

한편, 에너지공사는 해마다 취약계층 중 장애인 및 저소득 3200여 가구에 전기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1:1 매칭을 통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40

개소에 난방비를 지원, 제주도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JDC, 설 명절 맞아 도내 복지시설 위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는 지난 달 25일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2천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이날 오후 제주시 도련동에 위치한 흥익아동보육센터에서 이뤄졌다.

JDC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하고, 지원시설의 생필품 구매 편의를 위해 위문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아



▲ JDC는 지난 달 25일 흥익아동보육센터에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전달했다.

동 보육 및 양육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등 지원이 소외된 복지사각 지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광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공동체 위한 '행복나눔 꾸러미' 전달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이사 허재혁)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위해 '행복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사진).

나눔과 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2013년 처음 시작한 '행복나눔 꾸러미'는 올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복나눔 꾸러미에는 쌀, 라면, 참기름, 삼푸, 바디워

시, 통조림, 섬유유연제 등 5만원 상당의 생필품 184 세트가 구성됐다.

물품 전달은 오라·하귀 지역의 경우 '행복나눔 봉사단'이 직접 전달했고, 노

형·해안·고내·서귀포 지역은 정든마을 봉사단, 해안동 청년회, 서귀포일터지역 자활센터, 애월읍사무소 등

도내 각 지역 단체의 협조로 이뤄졌다.

## 장애인 예술극단 '깨비랑' 美예술극단과 교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 장애인 인형극단 '깨비랑'은 지난 달 23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연계로 美예술극단 '콘크리트 템플 시어터' (Concrete Temple Theater)와 함께하는 워크숍에 참여했다(사진).

워크숍은 '깨비랑' 회원 11명과 '콘크리트 템플 시어터' 극단 단원 3명(Renee Philippi, Carlo Adinolfi, Casey McLain), 주한 미국대사관 전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3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콘크리트 템플 시어



터' 인형극 공연 일부와 '깨비랑' 인형극 공연의 일부를 서로 시연하고 인형의 종류, 인형 조작, 인형극 창작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깨비랑 회원들이 다양한 인형조작 기법과 인형 제작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인형극 공연 기획·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제주시는 지난 달 25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2017년 상반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관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에 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절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제주지역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다.

경로장애인지원과 김성진 과장은 "노인학대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마/당

심리정서지원사업 '마음모꼬지II'



온새미로(늘푸른, 봉아름, 용담, 우리동네, 이호)연합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배분 사업인 2017년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마음 모꼬지II' 사업에 선정됐다.

'마음모꼬지II'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진단과 상담치료, 다양한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사랑 나눔 봉사활동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달 20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와 지역봉사단체 탐라여성팔각회가 함께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후원은 서귀포해경 전 직원이 참여한 '사랑의 모금운동'을 통해 이뤄졌다. 이재두 서장은 "앞으로도 서귀포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과 후원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희망 장학금' 전달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 달 11일 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25명에 2017년 '지역사회 희망 장학금' 1,500여 만원을 전달했다.

2007년 신분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과 기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지역사회 희망 장학금'은 현재 도내의 다양한 후원자 또는 사업장의 이름으로 17개 장학금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사랑의 김치' 전달



문주란 로타리 클럽(회장 장여선)은 지난 달 16일 제주몽생이 그룹 홍보(원장 김완숙)에 '사랑의 김치'를 전달했다.

올해 7월까지 매월 2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약속한 장여선 회장은 "지역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로타리 회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였다"며 "어려운 환경 속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우들을 위한 성탄절 위문공연



참좋은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의식)는 지난 12월 25일 한마음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한 성탄절 위문공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행사를 진행했다.

성탄을 축하하고 입원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주시 소재 5개 교회와 함께 실시됐으며 센터 아동들은 한국무용,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성탄축하 선물을 나눠줬다.

설맞이 전통놀이 체험



함덕지역아동센터(센터장 명혜숙)는 지난 달 18일 대명리조트 직원들과 함께 설맞이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민족 고유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을 직접 체험하며 익히는 시간이 됐다. 대명리조트는 본 센터와 협약을 통해 아동들에게 목욕이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몸과 맘 건강관리' 프로그램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지난 달 17일 유수암 보건지소를 방문해 이용장애인들의 혈압, 당뇨 측정과 함께 신장·체중을 기반으로 한 체질량검사를 실시했다.

'몸과 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이번 검사는 이용장애인의 전년 체질량 검사지와 비교해 개선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고쳐나 가야 할 식·습관에 대한 처방을 받았다.

신나는 라인댄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정숙)는 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2017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라인댄스'를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다.

라인댄스란 여럿이 앞, 옆, 뒷줄을 맞춰 미리 짜인 똑같은 동작들을 반복하며 추는 춤으로 센터 이용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운영된다.

'사랑의 나눔 꾸러미'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달 6일부터 중순까지 피학대 어르신 18명을 찾아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공감 펀딩 사이트 '해피빈'을 통해 주위 무관심 속에 학대받는 노인들을 알리고 이를 돕기 위한 네티즌들의 후원금이 모여 마련됐으며 피학대 어르신의 의료비, 주거비 지원에도 사용된다.

'제1회 은성 페스티벌' 성황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 달 21일 제주문예회관에서 '제1회 은성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제주올레오카리나, 칼리시스콰이어합창단, 들꽃합창단, 제주드림오케스트라 등 4개 동아리 5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북한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화재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주사랑요양원(원장 한영희)은 지난 달 19일 제주소방서 애월119센터(센터장 고석진)와 연계한 화재상황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화재상황 대피 매뉴얼 점검과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많은 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대피를 위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한국 문화를 알게 됐어요"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희)는 지난 달 15일 오후 천주교 중앙성당 강당에서 정유년 설날을 앞두고 '새해 떡국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고국을 떠나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13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퀴즈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사회구성원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론

### 개인적인 다짐과 국민의 희망은 감동일 터

붉은 닭의 해 2017년 정유년 이 어느덧 2월을 맞는다. 연말 마무리도 중요하고 새해 계획도 중요하다며 마음을 다진 지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서른한 날이 후딱 지나 버렸다.

개인적으로 지난 1월은 언뜻 바쁘게 생활한 듯 보인다. 제주도 문화재위 기념물분과 현장심의, 한림지역 용암동굴 조사, 제주학회 참석, 지인들과의 만남 등. 그러나 웬지 모르게 너무 부족하고 아쉽다.

####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한마디로 감동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감동의 사전적 의미는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순한 눈길, 순한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지 못했다. 겉으로 내뱉지만 않았지 속으로 불평을 달았던 때가 많았다. 그저 그런 듯 무미건조한 일상도 적지 않았다. 감사하는 마음, 그대 덕분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기가 왜 이리도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감동은 우리 일상의 말에서부터 나온다고 한다. 말의 향

기는 곧 사람의 향기일 터, 새롭게 2월을 맞으며 가능한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본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하고 숨 가쁘고 버거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적 저성장만이 아니다. 이로 인한 이기주의 심화 및 공동체 의식 약화라는 일탈적 현상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어진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탄핵 심판에 의한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다. 벌써부터 사회의 모든 이슈들을 대선정국이 빨아들이는 양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각계의 지도자들은 보다 밝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정작 대선 주자들의 새해 화두는 어떠한가. 이들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외치고 있다. 정말 이번에는 말뿐이 아니기를 소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의 아름다운 퇴장이다.

####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장

그는 대통령 당선연설에서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이라는 성공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 말대로 그는 포용과 감동의 힘으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다독였다.

백악관을 떠나던 날, 그의 마지막 일성은 “그렇다, 우리는 해냈다(Yes, we did!)” 였다. 외신들은 오바마를 평가하기를 미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성공적인 대통령의 반열에 들것이라고 한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대통령, 우리에게는 머나먼 얘기인가?



김범훈 (사) Geo-jeju 연구소장

기고

###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됩니다



안지현

노형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2017년부터 1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의 명칭, 색상·모양이 변경된다.

새로운 표지 모양은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색상도 본인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하여 단속 시 구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주차표지 변경의 특징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비닐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장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

입한 것이다.

이번 표지 교체는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 필요와 2010년 이전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가능 표지회수로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집중교체기간은 2017년 1월 2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간이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의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되어 기존 사각형의 주차 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

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체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중 주차가능에 해당하는 표지이며 절차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센터에서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음을 거듭 당부 드리며 홍보기간이 끝나는 8월 이전에는 반드시 주차가능표지를 재발급 받아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란다.

칼럼

### 무신경할 수 있는 복지현장 인권침해에 대한 염려

유력대선후보가 음성꽃동네에 자원봉사 갔다가 망신살이다. 침상 어르신이 누워 있는 상황에서 죽 넘겨드리다 기도흡입사고로 절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에는 어르신의 얼굴영상도 떠다니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복지현장에서 보기 민망한 봉사활동은 한 두건이 아니다. 카메라기자가 보는 앞에서 전나(全裸)의 여성장애인을 목욕시키고, 식사봉사하는 정치인과 감사해 하는 노숙인의 얼굴, 무표정한 이용객과 달리 환하게 웃으며 위문품을 등장시킨 영상과 사진은 인터넷 도처에 널려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왕세자탄강진하도십첩병(王世子誕降陳賀圖十疊屏)’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고종이 앉아야 할 자리에 고종이 없다는 것이다.

1874년 왕세자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연회를 베푼 장면을 그린 것인데 햇볕을 가리는 일산만 있을 뿐 왕의 얼굴은 감춰져 있다. 봉건왕조시대 초상권은 단 한사람 왕에게만 존재했다. 왕의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성역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서양문명을 받아들인 후 고종의 사진은 도처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역시 고종만을 위한 것이었다.

#### 이유 불문, 자기결정권은 보장받아야

각설하고 꽃동네시설측은 어르신에게 동의를 요청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와서 식사자원봉사를 할 것이고 사진촬영과 영상촬영이 있을 것이며 공개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했을까. 혹시 치매를 앓거나 병세가 깊은 분이어서 이를 생략하지 않았을까.

음성꽃동네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어르신에게 구체적 동의를 구했다는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용객들을 무신경하게 서터에 노출시키고 무신경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구정(舊正)에 즈음하여 스스로를 반성해본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 위문품을 갖고 오시는 분들, 하루라도 자원봉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의이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복지현장을 찾는 정치인을 힐난하고자 함도 아니다. 다만 이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용객의 입장을 고려하자.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인권의 가치하에 자기결정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하여튼 복지시설 봉사 오는 정치인들 클로즈업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아카데미상급이다. 눈물의 영상이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제주도 기부식품제공사업 18년(1988~2016년)

# ‘따뜻한 나눔’ 식품 기부액 지난 한 해 20억 넘어

## 전년도 저소득가정 3108가구, 사회복지시설 339개소 지원



지난 해 제주지역 식품기부액이 20억 원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광역푸드뱅크에서는 지난 해 도내푸드뱅크(4개소)와 푸드마켓(2개소)에서 기부받은 식품 접수액이 총 21억 20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식품기부사업이 시작된 지난 1998년 이후 18년만의 성과이다.

식품 기부액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시작된지 14년인 지난 2012년. 이후 불과 4년 만에 20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식품기부문화가 도민사회에 기부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광역푸드뱅크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이나 단체를 비롯해 도내 기업체들

의 사회공헌활동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03년 2억2000여만원이던 접수액은 2004년부터 줄어들어 2006년까지 3년간 1억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2007년 3억원으로 반등했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 2012년 11억417만 원으로 10억을 돌파하며, 2013년 11억1734

만 원, 2014년 11억5368여 만 원, 2015년 17억 1860만 원, 2016년 2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표 참조) 기부식품은 도내 5개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등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저소득가정 4108가구, 사회복지

시설 339개소에 총 21억 4875만원 상당의 식품이 지원된 바 있다. 제주광역푸드뱅크 관계자는 “성장세에 있는 식품기부 규모 확대를 위해서 기부식품 보관을 위한 저장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식품기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많은 도민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2016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봉사활동 사례발표

#### 머리 없는 돌부처



고순심  
좋은인연봉사회

경주박물관에 놀러온 초등학생들이 목 잘린 부처에 자기 얼굴을 얹으며 노는 모습

을 보고 ‘소년부처’라고 했던 정호승 시인의 시를 접했을 때 저는 한참을 알 수 없는 울림 같은 충격에 있었습니다. 돌부처는 왜 목을 잘라 놓았을까요? 누구나 부처가 돼 보라는 뜻 아닐까요. 우리 가족 중, 큰언니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어장애와 부자유스러운 신체장애로 인해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다 언니가 우리 가족이란 것이 창피했고 언니를 놀려대는 사람들에게 마구 화를 냈습니다. 이런 저의 일상적인 생활을 봉사의 가치와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좋은인연봉사회’ 강복렬 언니를 만나면서입니다. 제 사촌 시어머니 상을 치르시는 날 조문객으로 온 언니와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생활이 얼마나 이

기적이고 제 중심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에서 탈피하여 언니와 함께 활동을 하고 싶어 마음이 가날뜨게 떨리기조차 하였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시작된 첫 번째 봉사활동이 ‘성이시돌요양원’입니다. 오후 2시경부터 어르신들에게 생신 상을 차려드리고 즐거운 노래와 춤으로 흥겹게 위문하였습니다. 웃음기가 없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아지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

각나 울컥하였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제 삶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저를 봉사활동에 몸담게 해주신 고영찬 회장님, 강복렬 총무님을 비롯해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정희의 봉사 일기



김정희  
손뜻모아봉사회

손뜻모아봉사회에서 총무를 맡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회원들의 앞모습 보다

뒷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밴드에 봉사활동 후기와 사진을 첨부해야 그날 내 임무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각자 위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면 앞모습을 찍기 위해 앞에 멈춰서야 했고 바쁘게 움직이는 회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괜히 죄송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마음

을 회장님께 털어 놓았다. 회장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각자 하는 일이 있고, 네가 하는 일도 봉사활동에 일부” 라고 내게 말했다. 그리고 얼마 전 제주장애인요양원학습센터 정기봉사하는 날 우리 회원님들의 모습을 찍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겨진 우리 회원님들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그동안 되도록 이쁜 앞모습을 담아 올려 드리고 싶어 했던 내가 조금은 부끄러워졌다. 세상의 아름다운 건 우리의 앞모습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환하게 웃는 앞모습이 아니면 어떤가. 우리의 뒷모습은 앞모습에 비해 몇 배로 곱고 아름다운 것을. 결국 그 뒷모습은 우리 앞모습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 나는 말하고 싶다. 봉사활동의 준비물은 그저 마음하나라고 처음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때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봉사형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봉사형태에 너무 얽매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봉사활동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원봉사 자체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봉사활동으로 조금은 관찮은 어른이 돼 가는 나에게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본다.

시설탐방

(84)나눔요양원

# 밝은 미소 넘치는 내 집 같은 편안한 곳

## 이용 가족들까지도 언제든지 방문하도록 배려



▲ 나눔요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예, 미술, 인지, 작업치료, 요리, 신체활동, 음악,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집 혹은 부모님댁에 방문하듯 편하게 갈 수 있는 노인요양원 시설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

지난 달 시설탐방을 위해 찾은 나눔요양원(원장 김옥순, 이하 요양원)은 제주시 도평동에 위치해 있으며 4층 건물에 주차장, 산책로, 텃밭을 갖추고 있다.

설립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시설활동, 가사활동지원, 간호지원 등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지난 2012년 5월, 2층 건물로 준공하여 설립·운영된 요양원은 2015년 증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뤘다.

요양원은 현재 정원 63명에 59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

며 근무하는 직원은 40명이다.

이용을 원하는 대기 어르신이 20여 명이 넘지만 요양보호사 채용이 어려워 이용자를 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눔요양원의 특·장점을 묻는 질문에 김 원장은 “내 집과 같은 편안함과 직원들의 밝은 미소”라며 “가족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항상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 어르신 가족들의 편안한 방문을 배려하는 원장님의 운영 철학 때문인지 요양원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살펴보면 가족들의 입소문을 통한 입소로서 친·인척 관계의 어르신이 많다고 한다.

공예, 미술, 인지, 작업치료, 요리, 신체활동, 음악,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추억의 장

소 돌아보기’라는 특화프로그램이다.

분기별 1회 그룹을 묶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나들이를 통한 회상 프로그램이다.

개별 어르신의 관찰·상담·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이 기억하는 추억의 장소를 돌아보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정저석 안정, 인지기능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어르신 개별 ‘추억의 사진첩’을 제작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좋은 기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김 원장은 ‘인력관리’가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특히, 도에서 공적자금으로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데 민간시설을 제외한 법인시설에 한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이 법인시설을 선호한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급을 받는 법인시설 인건비 기준에 맞추려 하지만 운영부담에 따른 한계가 있다며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를 법인만 지원하니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요양원의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원장은 “특별히 새로운 계획이나 사업은 없다”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의 건강을 잘 챙겨드리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나눔요양원의 계획 및 포부라고 답했다.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39

## 민사조정제도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스럽지도 않을뿐더러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이미 들 어간 시간과 비용이 상 처뿐인 영광에 그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전부 혹은 일부를 이기고 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민사조정제도이다.

### ◆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제도는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다(인지대가 소송대비 1/10).

또한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가 가능해

지고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 조정합의가 되지 않을 때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되기도 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에서 조정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만큼 추가로 수수료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최종 해결책으로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깔끔하고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자 많은 노력을 들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항상 만족